

2018년 9급 시험대비 한국사 붕당정치 특강 (4)

임정원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6. 탕평론의 대두와 탕평 정치

(3) 정조의 탕평 정치(준론 탕평책)

1) 배경

: 사도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시파와 벽파의 갈등

2) 탕평 정치

① 준론 탕평

: 각 붕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림 → 영조 때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제거, 소론과 남인 계열을 적극적으로 등용

② 규장각 설치(1776)

: 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갖는 기구로 설치 → 비서실 기능, 과거 시험 주관, 문신 교육 임부 부여(초계 문신 제도 주관), 박제가·유득공·이덕무·서이수 등 서얼 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기용 → 왕권 강화

③ 초계 문신제 시행

: 스승(초월적 군주)의 입장에서 신하를 양성하고 재교육(37세 이하의 당하관을 규장각에 위탁 교육함)

④ 장용영 설치

: 국왕 친위 부대 →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 내영과 외영(수원 화성에 설치)

⑤ 화성 축조

: 현릉원(사도 세자의 묘) 이장,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로 건설(대유둔전이라는 국영 농장 설치, 만석거·만년제 등 저수지 축조, 선진적 농법 도입, 이주 상인에게 특권 부여), 행차 시 백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상언제도와 격쟁 제도의 활성화), 『화성성역의궤』를 편찬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약 80만 냥)와 인력, 기계, 물자 등을 상세히 기록함

⑥ 수령의 권한 강화(향약을 직접 주관)

: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력 억제 →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 강화

3) 사회 개혁

①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 완화

: 박제가, 우득공, 이덕무 등 서얼 출신이 관직에 등용, 국가가 도망노비를 찾아주던 노비추쇄법 폐지

② 신해통공(1791)

: 옥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상업 행위 허용, 노론의 정치 자금줄 차단

③ 문체반정(1792)

: 문체 쇄신 정책으로 노론 벽파 계열의 문체를 비판

④ 공장안 폐지

: 장인의 등록제를 폐지하여 수공업 활성화

4) 편찬사업

- ① 「고금도서집정」 수입: 청의 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정」을 수입하여 학문 정치의 기초를 다짐
- ② 「대전통편」「경국대전」, 「속대전」의 수정·보충판
- ③ 「동문취고」 인조 이후 대청·대일 외교 문서 정치
- ④ 「추관지」: 형정에 관한 법령집
- ⑤ 「탁지지」: 호조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 정리
- ⑥ 「증보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를 보충
- ⑦ 「무예도보통지」: 이덕무, 박제가 등이 편찬한 종합 무예서
- ⑧ 「일성록」 (1760~1910): 정조의 세손 시절 일기(존현각 일기)로서 즉위 후 규장각에서 기록, 정조 이후 역대 왕이 매일의 주요 정사를 상세히 기록,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
- ⑨ 「홍재전서」 저술: 정조의 개인 문집, 학자 군주의 면조
- ⑩ 「전옥옥편」: '강희자전'을 본 떠 만든 한자 자전
- ⑪ 「규장전운」: 서유구와 이덕무가 엮은 소리와 문자의 일원화를 도모한 한자 음운서
- ⑫ 「존주휘편」: 조선 중화주의 입장에서 대명의리론을 정리

5) 한계

: 봉당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함. 유력 가문과 손잡고 개혁 추진 → 정조가 죽은 후 세도 정치 등장

※ 자세히 보기 「화성성역의궤」기록

- 정약용이 설계하였으며 화포를 배치해 적을 공격할 수 있고, 전통적인 성곽 양식 위에 서양식 건축 기술을 도입해 축조하였으며 공학면에서 견고하다(거중기와 녹로 등을 제작 사용).
- 약 80만 냥의 경비가 지출되고 공사 기간은 2년4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인 장인들에게는 일당의 품값이 지불되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 「화성성역의궤」를 편찬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 인력, 기계, 물자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 18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밀한 도시 건설의 기록을 남긴 예가 없다.

※ 자세히 보기 초계문신제

- 37세 이하의 참상·참하의 당하관 중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초선하여 규장각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40세가 되면 졸업시키는 인재 양성의 장치를 강구한 것이 초계문신 제도이다. 이는 조선 전기 사가독서 제도나 독서당 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편제 한 것이다.
- 교육 과정은 과강의 강제가 주축이다. 전자는 매달 15일 전과 20일 후 두 번 행해졌고, 후자는 20일 후에 한번 실시되었다. 정조가 직접 교육에 임하는 친강은 매달 20일 경에 적당한 날을 잡아 거행하고, 왕이 직접 시험을 보이는 친시는 매달 초하루에 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문을 독려하고 인간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친위 세력으로 포섭하였다.
- 1891년(정조 5) 시작되어 1800년 정조가 죽을 때까지 10차에 걸쳐 138인이 배출되었다. 그 뒤 중단되었다가 1848(헌종 14)에 다시 시작, 2회에 56인을 뽑았다. 모두 12선에 174인이 초

계되어 재교육을 받은 것이다.

· 19세기 전반 공경대부의 태반이 이들 초계문신 출신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의 시기에 있어서 초계문신 출신 관료들의 비중과 활동을 알 수 있다.

※ 자세히 보기 시파와 벽파

영조 말년 외척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에 반발하여 노론 청류를 자임하며 비밀 결사 형태로 결집했던 청명당 세력은 정조가 강경한 입장의 사람들을 등용하는 준론 탕평책을 씀에 따라 정계에 진출 할 수 있었다. 이때 정계에 진출한 노론 청류들은 정조 연간 시파와 벽파로 분열하였다. 시파와 벽파의 분열 시점은 논란이 많으나 대개 정조 재위 전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시파와 벽파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돌출된 것은 1788년(정조 12)이다. 시파는 정조의 탕평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정국을 주도하여 나갔는데, 이에 반발하는 벽파가 이들을 사류에 편승하는 무리라고 비판하면서 ‘시파’ 혹은 ‘시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그에 비해 자신들은 궁벽하게 의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스스로 ‘벽파’라고 하였다. 시파는 사도 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임오화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벽파와 크게 대립하였다. 특히 1792년(정조 5) 영남 만인소 사건에서 충돌하였다.

영남의 유생들이 사도 세자의 죄를 신원하고 사도 세자에게 죄를 씌운 무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시파는 사도 세자 신원을 통해 정조의 권위를 높이는데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벽파는 영조가 정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때의 대치 국면은 탕평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로 대규모 당쟁으로 확대되었지만 시파와 벽파의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시파와 벽파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조 연년이 아니라 순조 연간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조 사후 정순왕후와 손잡은 벽파가 반대파인 시파를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학 죄인 모반 죄인이라며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1805년(순조 5)정순왕후 김씨의 사망 이후 벽파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끝났다.